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제63호는 한주 휴간 후 6.29(목)에 발간됩니다.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물류, 미국】美 시애틀항만, 노조와 갈등에 패배...“52억 달러 물동량 발 묶여”
- 【회담, 미국·영국】美英, 대서양 선언 발표...IRA 핵심광물 협정 협상 착수
- 【에너지, 베트남】베트남, 폭염에 전력난 본격화...공장 가동중단 등 피해 속출
- 【탄산리튬, 중국】中 전기차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 급락 뒤 한 달 새 71% 반등
- 【규제, EU·중국】EU, 5G 통신망에 中 화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 검토
- 【반도체, EU·중국】유럽 반도체회사 STM, 中 충칭에 32억 달러 합작공장 설립
- 【반도체, EU】프랑스, STM 반도체 공장 설립에 보조금 29억 유로 지원
- 【협정, EU】EU, 남미 자원 확보 위해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 우선 과제 설정
- 【광물, 나미비아】나미비아, 미가공 핵심 광물 수출금지 발표

공급망 뉴스 더하기

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 본회의 통과(6.1)

공급망 돌보기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무역수지 분석

공급망 전문가

EU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공급망 소식통

- ① 북미 최대 자동화기술 박람회, Automate 2023 참관기
- ② 2023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기업 모집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물류, 미국] 美 시애틀항만, 노조와 갈등에 폐쇄…“52억 달러 물동량 발 묶여”

- 6.10일(현지시간) 북미 지역 최대 항만 중 하나인 시애틀항이 노조와 갈등으로 폐쇄
 - 이날 태평양선주협회(PMA)*는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이 노동자들을 터미널에 파견하지 않아 시애틀항을 폐쇄한다”고 밝혔으며, “시애틀항 폐쇄로 많은 수출품이 도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
 - * PMA(Pacific Maritime Association) : 美 서해항만 터미널 운영사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 등 70개 기업 대표
 - ** ILWU(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 美 29개 서해항만 노동자 2만 2천 명 회원을 둔 노조
- ILWU는 선사와 항만 터미널이 팬데믹 기간 높은 수익을 냈다는 점을 들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PMA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 고조
 - PMA와 ILWU는 '22.5월부터 임금 인상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LA항·롱비치항·오클랜드항까지 美 서해항만에서 반복된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묶인 물동량의 가치는 약 52억 달러(6.7조 원)로 추산
- 시애틀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으로, 추후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회담, 미국·영국] 美英, 대서양 선언 발표…IRA 핵심광물 협정 협상 착수

- 지난 8일(현지 시간) 바이든 美 대통령과 리시 수낙 英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대서양 선언: 미국과 영국의 21세기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동 선언에서 양국은 영국산 핵심 광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핵심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동일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영국을 국방물자생산법(DPA)* 규정상 국내 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임
 -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물품의 생산을 확대·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 동 협정이 체결될 시 재규어랜드로버 등 영국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도 IRA에 따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양국은 양자·반도체, AI 개발 등 다방면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청정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민간 원자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출처: 헤럴드경제(23.06.09)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에너지, 베트남] 베트남, 폭염에 전력난 본격화...공장 가동 중단 등 피해 속출

- 6.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이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일부 북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일부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 속출
 - 베트남전력공사에 따르면, 하노이의 하루 평균 전력 소비량은 180억 kWh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했으며, 피크 전력 수요량은 4만 4,600MW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
 - 또한, 가뭄과 저수위로 인해 호아빈 수력발전소 외 전국 11개의 수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등 수력 발전량이 급감 및 석탄 공급 부족으로 화력발전소 가동 부진
- 베트남 북부는 중국과 가까워 삼성전자, 폭스콘, 캐논 등 세계적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부분 가동 중
 - 이에 북부지역의 주요 생산시설이 밀집한 박장의 지방정부가 지역 공장들의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는 비축한 예비전력을 활용해 생산시설이 멈추는 것을 면했으나 정전 및 전력난 지속 시 생산 차질 우려
- 산업계의 불만이 지속되자 베트남 정부는 계획 정전 등 절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사상 처음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등 발전량 확대를 위해 노력 중

출처: 연합뉴스(23.06.04), 글로벌이코노믹(23.06.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탄산리튬, 중국] 中 전기차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 급락 뒤 한 달 새 71% 반등

- 6.6일(현지시간) 상하이강련에 따르면, 中 전기차용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이 수요 회복과 당국의 수급 조절 영향으로 '23.4월 최저 가격 대비 한 달여 만에 71% 급등
 - 6.5일 기준 전기차 배터리용 탄산리튬의 거래 가격은 t당 30만 7,500위안(5,646만 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23.4월 최저 가격이었던 t당 18만 위안(3,308만 원)보다 71% 급등한 가격
- '22.11월 이후 배터리 누적 재고 급증, 리튬 채굴·가공 업계와 배터리 생산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23.5월부터 신에너지차 판매 증가 등 배터리 업황 회복과 배터리 수출 증가로 가격 상승세
 - '22년 말 보조금 지원 종료로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판매는 '23.1월 전월 대비 45% 급감하여 41만 대를 기록했으나, '23.2월부터 67만 대까지 증가하는 등 배터리 업황 회복으로 가격 상승 견인
 - '23년 1분기 中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1,097억 9천만 위안(약 20조 원)으로 '22년 동기 대비 94.3% 상승
 - '23.2월부터 자국 내 리튬 불법 채굴 단속을 이유로 리튬 채굴·가공업체 가동 중단을 통한 수급·가격 조절,
- 한편, 중국 기업은 남미·아프리카 리튬 광산 지분투자 확대 등 수급 안정성 강화 중

출처: 연합뉴스(23.06.06), 한국경제TV(23.06.0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규제, EU·중국] EU, 5G 통신망에 中 화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 검토

- 6.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가 회원국이 이동통신(5G) 통신망의 안보 위험이 우려되는 중국 화웨이 등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
- '20.1월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5G 통신망 구축 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의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7월에는 회원국에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현재 EU의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영국은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으며, 포르투갈 역시 정책 전환을 통해 일부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
- 현재까지 EU 회원국의 3분의 1만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동참했으며, 화웨이 금지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동의를 얻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현재 집행위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4년 이전에는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의 안보 위험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

출처: 로이터통신(23.06.08), 한국경제(23.06.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EU·중국] 유럽 반도체회사 STM, 中 충칭에 32억 달러 합작공장 설립

- 6.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는 중국 산안광덴(三安光電)과 中 주요 제조 허브인 충칭에 32억 달러(약 4.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
- *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 : 유럽 2위 반도체 업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반도체 기업
-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전기차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를 생산하여 중국 내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예정이며, 200mm SiC 생산라인 신규 구축을 통해 '25년 4분기 생산을 시작으로 '28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함
- *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주행거리 향상에 필수인 전력 제어 부품
- SCMP는 미국이 對中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 공정이 아닌 28nm 레거시(성숙) 공정을 중심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
- * '22.10월 미국은 14n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 시행

출처: SCMP(23.06.08), 연합뉴스(23.06.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EU] 프랑스, STM 반도체 공장 설립에 보조금 29억 유로 지원

- 지난 5일(현지 시간) 프랑스 정부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프랑스에 설립하는 반도체 공장에 29억 유로(약 4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힘
- *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 : 미국에 거점을 둔 세계 3위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 공장은 프랑스 서남부의 크를에 건설될 예정으로, 총 75억 유로(약 1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됨

- 브뤼노 르메르 佛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자력 분야를 제외하고 수십 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투자”라며 **동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17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규모**임을 강조함
 -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번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약 6% 확대**하고 1,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현재 EU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EU는 430억 유로(약 60조 원)를 지원해 '30년까지 20%로 확대 추진
- 출처: 한국경제(23.06.06)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협정, EU] EU, 남미 자원 확보 위해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 우선 과제 설정

- EU 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신남미 및 캐러비안 아젠다**’에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채택했다고 발표함
 - * '19년 타결되었으나 아마존 환경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비준 절차가 중단된 상태
 -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미 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 더불어 EU-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 정기 회담,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통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Global Gateway Initiative): EU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발표한 인프라 연계 투자 이니셔티브로, 중국의 일대일로(BRI) 전략에 대응하고자 고안됨
 - EU는 남미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측 모두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관련 디리스킹(De-risking)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6.07)

■ [광물, 나미비아] 나미비아, 미가공 핵심 광물 수출금지 발표

- 6.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미비아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금속(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수출금지 발표
- 나미비아는 세계 최고의 우라늄·다이아몬드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터리 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2년 나미비아는 EU의 對中 핵심광물 의존도 감소 계획에 따라 EU와 희토류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희토류, 리튬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남아프리카에서 핵심 광물 수출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남아프리카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22.10월 짐바브웨는 배터리 등급 리튬의 국내 생산을 희망한다며 리튬 광석 수출을 금지했고, 향후 정제 리튬의 수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가 '23.5월 짐바브웨에 ‘무역투자촉진협약(TIPF,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체결을 제안하는 등 최근 아프리카는 공급망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출처: 로이터통신(23.06.0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6.1)

'20.4월 EU 집행위가 공급망 실사법 계획을 발표한 이후, 3년 만에 의회 최종입장을 확정하면서 '23.6.1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의회 최종입장으로 채택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20.4월 유럽 집행위 실사법 계획 발표 후 3년 만에 의회 최종입장 확정하여 '23.6.1일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유럽의회, 6.1일 본회의 표결 통해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표로 가결

* 원문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참고★ 공급망 실사 주요 추진 경과

- 집행위 법안계획 발표(20.4월) → 의회 결의안 채택, 집행위 법안제출 요구(21.3월) → 집행위 제안(22.2.23) → 의회 담당위, 법안 수정초안 마련(22.11.7) → 이사회, 타협안 마련(22.11.22) → 이사회 입장 채택(22.12.1) → 의회 위원회 통과(23.4.25) → 의회 최종입장 채택(23.6.1)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고위험산업* 매출비중이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기업도 적용대상에 신규 추가

* 환경·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

- 아래 ①, ②중 1개라도 해당되면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 기업 대상 적용

구분	적용 대상 기업
역내	①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기업 ②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역외	① EU 내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②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이고, 역내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 범위 예시 : 원자재·부품·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소싱, 추출, 제조, 공급, 운송, 보관, 판매, 유통, 기업 차원의 폐기물 관리

- (실사 절차)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 시행 및 실사 준수 내용 공시

★참고★ 실사 절차

① 실사를 기업정책 전반에 내재화 → ② 인권·환경 관련 기업의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 → ③ 예방·완화·제거·최소화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④ 비사법적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참여 → ⑤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 ⑥ 웹사이트 내 실사 내용 공개 → ⑦ 실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 (민사책임) 기업의 실사 의무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 필요

* 공소시한은 최소 10년이며, 지침 적용대상인 자회사가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해산하거나 모기업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모회사로 전가됨을 유의

- (기후전략) 기업은 지속 가능 경제, 파리협정 및 EU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필요
 - * 직원 수 1천 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이행 성과를 경영진 보너스에 반영 의무
- (단일시장 조화) 역내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시 해당법과 동 지침 규제 수준 일치 필요
 - * 추후 회원국 간 일치 수준 조정 및 동 조항의 규정 전환 여부 검토 예정
- (CSRD 연계)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실사 지침과 연계 적용
 -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일정 규모 기업에 ESG 영향 공시 의무를 지우는 지침으로, '23.1월 발효 후, 현재 회원국의 자국법 전환 중
- (가이드라인) 집행위는 기업이 실사 법안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체화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계획
 -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환경기준 이행, 지리적·기업별 위험 요인 및 특정 산업별 안내서, 계약조항 모델, 중소기업 전용 안내서, 부정적 영향 완화·제거 우선순위 지정 및 이행, 책임있는 구매 관행, 비사법적 고충처리 시스템 설립, 국별자료 등
- (제재) 각 회원국별 제재 수준을 결정하며, 벌금*, 공공조달 입찰, 유통 및 수출금지 등 비금전적 조치도 포함 가능
 - * 벌금은 전세계 순 연매출액의 최소 5% 이상 부과
- (적용시점) 발효 2년 후(국내법 전환), 아래 기업은 3~5년 후 적용

구분	적용 대상 기업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직원수 1천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동 기준(직원수 및 매출액)을 충족한 최종 모기업 · (역외)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기업, 또는 △동 매출액을 충족한 최종 모기업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직원수 25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직원수 5백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한 최종 모기업 · (역외) △EU 역내 매출액 4천만 유로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또는 △동 매출 기준을 충족한 최종 모기업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기업 중, 직원수 250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천만~1.5억 유로 이하인 기업은 5년 후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당국에 해당 내용 통보 필요

■ 향후 일정 및 전망

- 3자 협의 개시 예정이며, '24.6월 유럽선거 이전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금융 분야 포함 여부, 경영진 보너스 연계 문제 등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 중
- 지침 시행 시, 공급망에 놓인 기업의 간접 영향이 예상되며 협력사 선정단계부터 EU 기업들의 높은 인권·환경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
- 한편, 최종 실사 합의안 도출까지 법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어 3자 논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주시 필요

■ 입법 기관별 주요 입장 정리

구분	집행위 초안		이사회*	의회(최종)	
실사 항목	인권, 환경		집행위 최종	집행위 최종	
대상기업 (단위 : 유로)	역 내	▶ 직원수>500명, 매출>1.5억 유로 ▶ 직원수>250명, 매출>4천만 유로, 고위험산업 매출 ≥50%	집행위 최종	역내	▶ 직원수>250명, 매출>4천만 유로 ▶ 직원수≥500명, 매출>1.5억 유로 최종 모기업
	역 외	▶ 역내 매출>1.5억 유로 ▶ 역내 매출>4천만 유로, 고위험산업 매출 ≥50%		역외	▶ 역내 매출≥4천만 유로, 전세계>1.5억 유로 ▶ 직원수≥500명, 역내 매출≥4천만 유로, 전세계 매출 >1.5억 최종 모기업
실사 범위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전반)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 * 재활용, 폐기 등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 * 재활용, 폐기 등	
금융 분야	포함		미포함 (회원국 결정)	포함	
민사책임	포함		조건부 포함	포함	
제재 조치	회원국 결정		집행위 최종	집행위 최종	
경영진 의무	보너스 성과 반영		보너스 성과 반영 삭제	보너스 성과 반영 (직원수 1천명 이상 기업에 한함)	
적용 시점	2~4년		3~5년	3~5년	
단일시장 조화	-		-	국내법 전환 시, EU 실사 지침 규제 수준과 일치(신규)	

* 이사회 입장은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 내용이며 최종입장은 추후 표결 예정

● 공급망 돋보기 :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무역수지 분석

청정e 공급망에서 중국, 일본, 한국은 청정e 기술을 수출하는 주요 순수출국이지만, 필요한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한다. 반면 유럽은 기술과 핵심광물에서도 순수입국이며, 미국은 정제 핵심광물의 순수입국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청정e 공급망 무역 시리즈〉

(61호) 국제무역 현황

(62호) 무역수지 분석

■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무역수지 분석

① 중국

-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주요 순수출국으로, 태양광발전 모듈 생산량의 52%를 수출하며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생산량의 대부분이 자국에 공급되어 수출량이 각각 8%, 13%

*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차(수소차), 전해조, 태양광발전 모듈, 풍력터빈, 히트펌프 등이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임

- 하지만,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지역 간 수출(inter-regional exports)의 각각 25% 및 80% 이상을 차지하고, 주로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 벌크자재는 거의 자급자족하며 철강은 생산량 일부를 수출하지만, 리튬·코발트·니켈·구리 광석 등의 핵심 광물과 다결정 실리콘 및 정제된 니켈·구리는 대량으로 수입

② 유럽

- 유럽은 풍력터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수입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음의 무역수지를 기록
- 풍력터빈의 부품은 지역 간 수출(inter-regional exports)이 25%로 순수출을 보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연료전지차, 태양광발전 모듈(전량 수입) 등의 청정에너지 기술 대부분을 수입
- 유럽은 다결정 실리콘을 수출하지만, 리튬과 같이 가공용량이 없어 수입하지 않는 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벌크자재에서도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수입

③ 미국

- 미국은 유럽에 비해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수입이 적은 편이지만, 태양광발전 모듈과 풍력터빈은 자국 수요에서 수입량이 각각 65%, 38%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량이 많음
- 전기차는 테슬라 덕분에 전체 지역 간 수출(inter-regional exports)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순수출국임
- 미국은 정제한 핵심광물과 알루미늄의 주요 순수입국이며, 정제용량(능력)이 없어 정제한 광물 외에는 수입하지 않음

④ 한국과 일본

- 한일 양국은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수소차)의 순수출국이지만, 필요한 핵심광물에 있어서는 순수입국
-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순수입국이지만, 전기차, 태양광발전 모듈, 풍력터빈의 경우 순수출국임. 일본은 전기차 생산량의 76%를 수출하고 연료전지차도 생산량의 61%를 수출하지만, 태양광발전 모듈은 거의 수입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무역수지(21년 기준)〉

		China	Europe	States	Japan	Korea
Energy technology	Li-ion batteries	13%	-30%	-7%	27%	-14%
	Electric cars	8%	-27%	3%	76%	58%
	Fuel cells – mobility	5%	-92%	-4%	61%	8%
	Electrolysers	0%	0%	0%	0%	0%
	Solar PV – modules	52%	-100%	-65%	-92%	45%
	Wind turbines	14%	6%	-38%	-46%	80%
	Heat pumps	14%	-25%	2%	17%	8%
Critical minerals	Lithium ore	-75%	0%	-100%	0%	0%
	Cobalt ore	-98%	-100%	100%	-100%	0%
	Nickel ore	-88%	-66%	100%	-100%	-100%
	Copper ore	-80%	-40%	30%	-100%	-100%
	Nickel refined products	-51%	-22%	-100%	23%	-58%
	Copper refined products	-25%	-11%	-45%	41%	-1%
	Solar PV – polysilicon	-54%	37%	17%	40%	64%
Fossil energy	Coal	-8%	-43%	15%	-100%	-99%
	Oil	-78%	-72%	-18%	-97%	-100%
	Natural gas	-41%	-57%	9%	-98%	-98%
Bulk materials	Iron and steel	5%	2%	-24%	31%	17%
	Plastics	-21%	-10%	21%	6%	44%
	Aluminium	-7%	-53%	-80%	-100%	-100%
Averages	Energy technology average	15%	-38%	-16%	6%	26%
	Critical minerals average	-85%	-52%	33%	-75%	-50%
	Refined critical minerals average	-43%	1%	-43%	35%	2%
	Energy (fossil) average	-42%	-57%	2%	-98%	-99%
	Bulk materials average	-8%	-20%	-28%	-21%	-13%

주 : 1) 무역수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순수출국의 경우 지역(국가)별 순수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누고, 순수입국은 지역(국가)별 순수입량을 소비량으로 나누어서 산정.

순수출국의 경우에는 양의 무역수지를 나타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음의 무역수지를 나타내며 빨간색으로 표시

2) 본 무역수지는 무역액이 아니라 물량(물리적 단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데이터 가용성 때문에 히트펌프와 풍력터빈은 무역액을 사용

3) 진한 빨간색은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뜻이고, 연할수록 그 비율이 적다는 의미임

자료 : IEA(2023)

■ 시사점

- 일반적으로 잘 확립되고 **성숙한 공급망**에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잠재적 교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집중**과 이와 관련된 **위기에 대처**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은 새롭게 구축되고 급속하게 진화되고 있어 높은 지리적 집중에 더 취약할 수 있음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에너지안보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매우 크므로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
- 아울러, 대부분 **핵심광물의 확인매장량**은 **현재 생산량**에 비해 지리적으로 더 분산되어 있으므로, **핵심광물의 공급원을 다각화**하여 소수의 주요 생산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 희토류의 경우, 매장량의 분포가 현재 채광 분포와 매우 다르므로 이는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가 많다는 것을 의미
- 한편, 자국의 생산·제조 용량 개발 및 공급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자재·기술에서 생산·제조 시설의 지리적 집중과 이와 관련된 취약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므로 **국제무역 정책과 관세**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탄력적·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공급망 전문가 : EU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한아름(2023.04.19.),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 요약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초안에 담겼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EU 핵심원자재법 시리즈〉

(62호)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63호) 영향과 기업 대응 방안

■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EU 내부에서의 정책적 논의는 '08년부터 시작

- EU는 '11년부터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를 3년마다 지정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기 시작

■ 일련의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EU의 핵심원자재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음

-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 마그네슘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갈륨, 스칸듐, 비스무트의 중국에 대한 공급의존도 또한 65% 이상에 달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음

〈'23년 EU 핵심원자재 주요 공급국 현황〉

광종	최대 공급국	단계	공급비중	광종	최대 공급국	단계	공급비중
중희토류	중국	가공	100%	알루미늄	기니	생산	63%
경희토류	중국	가공	85%	베릴륨	미국	생산	60%
마그네슘	중국	가공	97%	장석	튀르키예	생산	51%
갈륨	중국	가공	71%	망간	남아공	생산	41%
스칸듐	중국	가공	67%	티타늄	카자흐스탄	가공	36%
비스무트	중국	가공	65%	헬륨	카타르	생산	35%
바나듐	중국	가공	62%	형석	멕시코	생산	33%
중정석	중국	생산	45%	인광석	모로코	생산	27%
게르마늄	중국	가공	45%	스트론튬	스페인	생산	99%
천연흑연	중국	생산	40%	하프늄	프랑스	가공	76%
텅스텐	중국	생산	32%	비소	벨기에	가공	59%
니오븀	브라질	가공	92%	니켈	핀란드	생산	38%
붕산염	튀르키예	생산	99%	실리콘 금속	노르웨이	가공	35%
리튬	칠레	가공	79%	원료탄	폴란드	생산	26%
안티모니	튀르키예	생산	63%	구리	폴란드	생산	19%

주: 1) 공급비중 파악이 불가능한 코발트, 백금족 원소 제외

2) 빨간색으로 표시된 광종은 중국, 초록색은 EU 역내 국가, 노란색은 기타 제3국의 공급비중이 가장 높음

3) 굵게 표시된 광종은 역외 특정국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65% 이상

자료: EU Commission(2023)

■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EU 역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U 차원의 핵심원자재 관련 입법이 본격화됨

〈CRMA 초안 주요 내용〉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 확대	전략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지원	원자재 공급망 관리 강화	원자재 지속가능성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통한 공급망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15%) 달성 · 역외 특정국 의존도 65% 이하로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기간 단축 (채굴 24개월, 가공·재활용 12개월) · 자금 조달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원자재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 · 기업별 공급망 사내 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자석 사용 제품 출시 기업 대상 정보제공 의무 · 환경발자국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원자재클럽 등 전략적 파트너십 · 환경, 인권 등 지속가능한 원자재 교역 확대

■ EU집행위원회는 CRMA 초안에서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및 EU 역내 공급망 강화 목표 제시

-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목록을 34종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중 전략산업 중요도 및 공급 리스크가 높은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16종 별도 지정

〈EU 전략원자재 목록〉	
(a) 비스무트(Bismuth)	(i) 망간-배터리 등급(Manganese - battery grade)
(b) 붕소-야금등급(Boron - metallurgy grade)	(j) 천연흑연-배터리 등급(Natural Graphite - battery grade)
(c) 코발트(Cobalt)	(k) 니켈-배터리 등급(Nickel - battery grade)
(d) 구리(Copper)	(l) 백금족 금속(Platinum Group Metals)
(e) 갈륨(Gallium)	(m) 자석용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for magnets)
(f) 게르마늄(Germanium)	(n)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g) 리튬-배터리 등급(Lithium - battery grade)	(o) 티타늄 메탈(Titanium metal)
(h) 마그네슘 메탈(Magnesium metal)	(p) 텅스텐(Tungsten)

주: 자석용 희토류 원소는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터븀(Tb),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사마륨(Sm), 세륨(Ce)을 포함

- (공급망 강화 목표) '30년까지 전략원자재의 역외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65%를 넘지 않도록 EU 연간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역내 생산 확대 목표 제시
- (전략 프로젝트) 역내 전략원자재 확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인·허가 기간을 채굴사업 24개월, 가공·재활용 사업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

■ 핵심·전략원자재 사용 기업에 대해 사내 공급망 감사 및 원자재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공급망 감사의무) 전략원자재를 사용하여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는 EU 역내 대기업은 2년마다 자체 공급망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전략적 기술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구동용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저장 장치, 모바일 기기, 3D 프린트 등 적층 제조 관련 장비, 로봇틱스, 드론, 로켓 발사장비, 인공위성, 첨단 반도체 등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방산, 우주 산업 필수 기술
대상 기업	역내 임직원 수 500명 이상, 전 세계 연간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약 2,2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 (영구자석 정보공개 의무)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EU에 출시하는 기업은 영구자석의 원자재 구성 및 원자재 재활용 관련 정보가 담긴 라벨 또는 데이터 캐리어를 제품에 부착해야 함

대상 품목	자기공명영상장치(MRI), 풍력발전기, 산업로봇, 자동차, 소형운송장비, 에어컨, 히트펌프, 전기 모터 및 전기 모터 사용 제품, 자동세척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대상 기업	EU 역내 제조 기업 뿐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역외 수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30년 12월 31일 이후 영구자석의 재활용 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 규정하는 위임법안 도입 가능

■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초안에는 자국산 사용·조달 요건이나 외국산에 대한 명시적 차별조항이 없으나, 집행위-이사회-의회 3자 협의과정에서 역내 원자재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 강화된 조치가 추가될 수 있음
- 공급망실사지침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환경·인권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중국산이나 기타 제3국의 원자재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참고](#) 한아름(2023.04.19.),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 공급망 소식통 : 북미 최대 자동화기술 박람회, Automate 2023 참관기

■ 미국 자동화기술박람회(Automate) 2023 개요

- ▶ 행 사 명 : Automate 2023 (2023 미국 자동화기술 박람회)
- ▶ 일 시 : '23.5.22(월)~25(목)
- ▶ 장 소 : 디트로이트 헌팅턴플레이스(Huntington Place)
- ▶ 분 야 : 인공지능, 스마트 자동화, 로봇, 모션제어, 머신 버전 관련 업체 등
- ▶ 규 모 : (참가업체) 약 750개사 이상 / (참관객) 약 2만 5천명 이상

■ 전시회 현장 스케치

-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객 중심의 다양한 로봇 기술의 결합'으로, 협동 로봇 팔을 자율주행 로봇(AMR)에 탑재해 물류 창고 관리, 제조 생산라인에 적용하거나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AI·모션제어·머신 비전 등의 로봇 기술을 결합해 응접·조립·포장·팔레타이징에 이르기까지 넓은 응용 분야를 선보임
- 참가기업 'JR Automation'은 모듈식 자동화 플랫폼인 FlexChassi™을 선보였으며, 고객사의 입장에서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공급함으로써 즉시 사용 가능토록하여 고객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 제시
- 참가기업 '화낙(FANUC)'은 무거운 하중(1,000kg)의 배터리를 쉽게 들어 올리고 수직 및 종방향으로 배터리를 옮기는 대형 자재 처리 로봇팔을 선보이며, "자동차 부품의 드릴링 및 핸들링 작업, 건설 자재의 처리, 전기차용 배터리 팩의 조립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
- 참가기업 'LOGOMAT Automation Systems'는 전통적인 롤러 컨베이어에 자체 구동 카트 및 스마트 통신 기술이 장착된 자동화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특히 고속으로 이동하며 무거운 적재량(최대 3,000lbs)이 요구되는 공정 내에서도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네킹도 함께 배치하였음
- 참가기업 'Mobile Industrial Robots', 'Locus Robotics', 'OTTO Motors'는 제조·창고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로봇(AMR)을 선보였으며, 인력과의 안전한 협업과 자유로운 자재 이동 임무 수행 등 가까운 미래의 물류 창고 모습을 상상하게 함



JR Automation 부스



화낙(FANUC) 자동차 제조 현장 시연



LOGOMAT 자동화 컨베이어 솔루션 전시



자율주행로봇(AMR) 전시

■ 우수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린 한국 로봇틱스 기업

- 이번 박람회에서는 북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주관 첫 ‘한국관’을 선보였으며, 우수한 한국 로봇·자동화 전문기업 뉴로메카, 도구공간, 레인보우로보틱스, RS Automation, HCNC, UND, 태하, 트위니 등 참여

*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함께 북미 지역 로봇틱스 수요 동향 및 정책동향 등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파트너 연결지원·박람회 현장 상담주선 등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 지원

- (뉴로메카) 협동 로봇 모델 ‘인디(Indy)’ 시리즈와 협동 로봇 중심 용접 자동화 솔루션 전시
- (도구공간) 자율주행 순찰로봇 전문 기업으로 보안에 특화된 AI 탑재 ‘패트로버(Patrover)’ 전시
- (레인보우로보틱스)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 사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합동로봇 ‘RB 시리즈’ 5종 전시
- (RS Automation) 서보드라이브, MMC, 서보 모터, PLC 컨트롤러, 분산형 I/O 등 ‘지능형 고정밀 로봇 모션 제어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 제어 솔루션’ 전시
- (HCNC) 유연한 생산을 위해 AI를 적용한 그리퍼(Gripper) 등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시
- (UND) 맥봇(Magbot) 개발사인 로봇 스타트업으로, 마그넷 기반 무선 결합 방식인 로봇 자동 툴 체인저 전시
- (태하) 액체정량공급시스템 전문 제작 기업으로, 자동 분사 시스템을 갖춘 정밀 액체 정량 토출장치 전시
- (트위니) 자율주행로봇 개발 전문기업으로, 물류 작업 내 피킹(picking)과 포장(packing) 작업 사이의 보행을 최소화해 작업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 오더피킹(NarGo Order Picking)’ 전시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한국 로봇틱스 기업들〉



● 공급망 소식통 : 2023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기업 모집 안내

■ '2023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월 도쿄, 파리, 6월 호치민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의 열기를 오는 9월 자카르타로 이어갑니다. '2023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우수한 K-Product를 부스별로 전시하고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과 미팅을 진행하는 전시·상담회입니다. 현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판촉전 및 현지 SNS 마케팅을 위한 포토스튜디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오니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전시·상담회 개요

- 기간 : 9.14(목)~9.17(일), 10:00~18:00
- 장소 : JCC(Jakarta Convention Center) 전시장 Hall A, B
- 주최/주관 :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 *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공동 주최 및 후원
- 규모 : 총 150개사 내외 / 9,600m²
- 전시 품목 : 홈&아트, 뷰티&패션, 식품, 맘&키즈 등 소비재 전반
- 주요 내용 : ① 참가업체별 프리미엄 부스 제공 및 제품 전시
 ② 현지 바이어 사전매칭(최소 6개사 이상 목표) 및 워크인 수출상담 지원
 ③ tradeKorea 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사전마케팅 제공

■ 참가 신청

신청 기간	6.5(월)~6.15(목)
모집 규모	선착순 20개사 내외
신청 방법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 서류	신청서, 품목명세서, 제품 카탈로그(없을 경우 타 홍보자료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참가기업 협약서
참가비	550만원/1개사(1부스 기준) * 전시회 참가비 납부 관련, '정부의 수출 바우처' 및 '지자체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등 활용 가능 (별도 상담 요망) * 포함 내역 ① 전시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②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 지원 ③ tradeKorea 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사전마케팅 제공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 02-6000-5395, ✉ jh.sung@kita.or.kr)

글로벌 경제지표(23. 6. 14. 수)

[환율]

	'21말	'22말	'23.5말	6/12	6/13	6/14	전일비	22말비
₩/U\$	1,186.30	1,188.80	1,327.20	1,288.30	1,271.40	1,278.50	0.56	1.11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323.10	1,285.80	1,269.30	1,276.10	0.54	0.85
₩/CNY	166.04	186.51	186.31	180.33	178.00	178.51	0.29	△1.61
₩/¥100	1,051.19	1,032.48	951.13	923.78	911.01	912.56	0.17	△3.49
¥/U\$	103.34	115.14	139.54	139.46	139.56	140.10	0.39	4.76
U\$/EUR	1.2279	1.1318	1.0684	1.0751	1.0793	1.0784	△0.08	1.57
CNY/U\$	6.5305	6.3681	7.0991	7.1392	7.1392	7.1644	0.10	2.89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5.8 (₩/¥100) 967.2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6.12(전일)	'23.6.13	전일比	'22년최저比	'22년말比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2.38	71.97	△0.4 △0.6%	0.1 0.2%	△6.8 △8.6%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12.40	112.90	0.5 0.4%	33.4 42.0%	△4.4 △3.8%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287.00	8,421.50	134.5 1.6%	1421.5 20.3%	34.5 0.4%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88.00	2,193.50	5.5 0.3%	113.5 5.5%	△167.0 △7.1%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1,100.00	21,250.00	150.0 0.7%	2150.0 11.3%	△9175.0 △30.2%

[반도체]

	'21	'22	'23.3월	'23.4월	'23.5월	6/9	6/12	6/13	6월(~1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1	1.63	1.58	1.52	1.52	1.52	1.52
(%, YoY)	29.9	△23.0	△55.5	△54.8	△53.9	△54.6	△54.2	△54.1	△55.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2	6.40	6.39	6.35	6.35	6.35	6.35
(%, YoY)	14.7	10.7	△18.7	△20.9	△22.6	△18.2	△18.0	△15.9	△20.7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5.19	5.26	6.2	6.9	전주비(6.2)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72.45	983.46	1028.7	979.85	△4.7%	△11.5%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5.26	6.2	6.9	6.12	6.13	전일비(6.12)	'22년말비
BDI	2217	1515	1172	919	1055	1056	1074	1.7%	△29.1%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허 슬 비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정 다 건 정 유 진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구독〉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피드백〉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생물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산업진흥회



한국화학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전력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